‘마담 노트’ 누구 이름 올랐길래…

400명 중 100명 입건 … 100명은 조사 조차 안 해 ‘봐주기’ 의혹

목포 룸살롱 여종업원 29명 성매매 시인

‘목포 룸살롱 마담 장부 사건’〈본보 9월 15일자 6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문제의 룸살롱 여종업원 30명 가량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마담 장부’에 연루된 인사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성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명의 남성 중 300명을 조사한 상태에서 100명 만이 입건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100명 가량은 단 한차례도 조사를 못한 상황이어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모두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는 불신과 소문 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H룸살롱과 이 가게에 도우미를 공급한 보도방 등 여종업원 30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여종업원 29명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마담 장부’에 오른 남성 400여명 대부분이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여종업원 가운데 대부분이 장부에 이름이 적힌 남성들과 3~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경찰은 장부에 오른 남성 총 398명 중 300명에 대해 수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100여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성매매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범죄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여종업원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안팎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성매매를 시인한 남성들만 기소유예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이미 넉달 남짓 진행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사 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범죄 입증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같은 경찰의 수사 방향을 놓고 지역 유력자들이 대거 포함돼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남성들 사이에선 범행을 시인한 사람만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목포지역에선 ‘고위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등이 대거 연루됐다’는 식의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경찰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상당수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목포지역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성매매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목포시민 임모(47)씨는 “이번 사건 이후 목포지역의 유흥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이 철저하게 사건을 규명해서 더이상 유사한 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룸살롱 마담 장부 사건’은 지난 6월 경찰이 성매매를 나간 H룸살롱 여종업원과 손님 간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룸살롱 마담이 갖고 있던 거래 장부를 찾아내면서 불거졌다.

목포경찰의 관계자는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중이며,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100명은 주거지가 타 지역이거나 소환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은 사람들로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목포=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동신대·초당대·목포가톨릭대

취업률 전국 10위권

교과부, 전수 조사

광주·전남권 4년제 대학 중 동신대학교와 초당대학교(산업대), 목포가톨릭대학교가 전국 10위권의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대학 중에서는 전남과학대학·조선간호대학·기독간호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10위권에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전국 524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3만9천99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6만7천3명(55.0%)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고 대학별 취업률 현황을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다 그룹’(졸업자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에서는 산업대인 초당대가 64%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동신대는 62.5%로 전국 10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으로서는 광주·전남 대학 중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어 목포가톨릭대가 ‘라 그룹’(졸업자 1천명 미만)에서 69%로 전국 8위에 올랐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광주여대 61.1% ▲광주대 58.9% ▲남부대 55.7% ▲호남대 50% ▲목포대 48.5% ▲대불대 47.4% ▲전남대 46.2% ▲순천대 45% ▲조선대 43.6% 등의 순이었으며, 이중 전남대는 전국 10곳의 거점 국립대 중 최하위였다.

전문대학은 전남과학대학이 64.5%로 ‘나 그룹’(졸업자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 학교 63곳 중에서 전국 8위를 차지했으며, 광주보건대학이 61.5%로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또 ‘다 그룹’(졸업자 1천명 미만)에서는 60곳의 학교 중 조선간호대학이 74.4%로 전국 3위, 기독간호대학이 68.3%로 전국 8위, 고구려대학이 61.3%로 18위를 기록했다.

이 취업률 통계는 취업자 중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만 추려내 산출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대학당국이 자체 조사해 보고했던 방식보다 신뢰성이 높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운찬 〈8132〉 김종두

70대 노부부 억대 ‘곗돈 사기’

노인 19명 끌어들여 1억6천만원 빼돌려

남부경찰 구속·입건

70대 노부부가 비슷한 또래 노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곗돈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나란히 전과자 신세가 됐다.

지난 2008년 8월 생활비가 떨어진 오모(76·광주시 남구 월산동)씨. 오씨는 자신의 아내(73)에게 “친분이 있는 노인들을 끌어 모아 계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곗돈이 모이면 주지 않고 빼돌릴 요량이었다.

10여년 전까지 서구 치평동에 살았던 오씨 부부는 과거에 같은 동네에 살며 친해지거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채모(여·86)씨 등 70~80대 노인 19명에게 접근해 “이자가 높은 좋은 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특별히 끼워 주겠다”며 꾀었다. 오씨의 말을 믿은 채씨 등은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짜리 계 모임에 가입했다.

오씨 부부는 계를 만든 뒤 한동안은 ‘계원’들에게 곗돈을 꼬박꼬박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채씨가 곗돈을 받을 차례가 돌아왔지만, 오씨는 “다음에 필요할 때 찾아주겠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오씨는 채씨에 이어 또 다른 계원 김모(여·75)씨의 차례가 돌아왔지만, “당신 차례가 아니라 다른 계원이 받을 차례”라며 김씨 마저 속였다.

오씨 부부는 이처럼 셈이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곗돈 타는 순서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7월까지 1억6000만원이 넘는 곗돈을 빼돌렸다.

광주남부경찰은 1일 계모임을 만들어 억대의 곗돈을 가로챈 오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오씨의 아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00살 잔치’ 흐뭇한 미소 장수촌으로 알려진 구례·곡성·순창·담양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95살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2회 구곡순담(求谷淳潭)100살 잔치’가 1일 구례 서시천공원에서 열렸다. 이재룡(101·구례읍)옹이 서기동 구례군수로부터 큰 절을 받은 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구례=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강운태 시장 5·18 행적 비방

오월단체 간부 4명에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5·18 관련 행적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 등 5·18구속부상자회 간부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광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 시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3월 강 시장의 5·18 행적 검증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게시·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盧 영결식장서 MB 비방

민주당 백원우 의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가자가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조문객의 헌화에 백 의원의 행위가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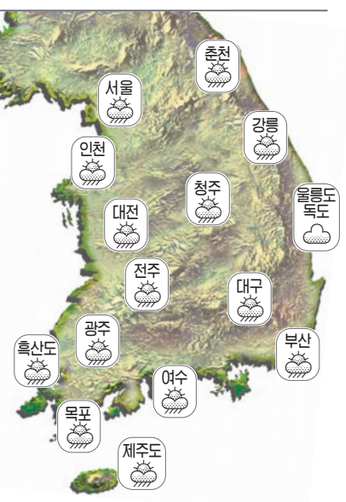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8분 / 해짐 18시 16분 — 달뜸 --시 --분 / 달짐 14시 25분

감기 조심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 가끔 비	14/25℃
목 포	흐리고 가끔 비	14/24℃
여 수	흐리고 가끔 비	18/23℃
완 도	흐리고 가끔 비	14/25℃
구 례	흐리고 가끔 비	11/25℃
해 남	흐리고 가끔 비	12/25℃
장 흥	흐리고 가끔 비	12/25℃
고 흥	흐리고 가끔 비	14/25℃
순 천	흐리고 가끔 비	14/25℃
영 광	흐리고 가끔 비	13/24℃
진 도	흐리고 가끔 비	13/25℃
전 주	흐리고 가끔 비	13/25℃
남 원	흐리고 가끔 비	10/25℃
흑산도	흐리고 가끔 비	17/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8:04 21:14	01:37 13:38
여수	03:14 16:41	09:37 23: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날 씨						
최저/최고	16/21	12/19	11/22	12/24	13/24	14/23

가을비 추적추적 ‘쌀쌀’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비가 온 뒤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3일 오전에 그치겠다”며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겠다”고 1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3일까지 30~70㎜.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여수산단 LG화학 공장 폭발 사고

현장 작업 2명 화상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분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여수공장의 화성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이모(39)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여천제일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1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화성품 공장 아크릴산 정제공정이 정전으로 인해 30분 가량 가동이 중지된 후 폐가스 송풍기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출관 내부에서 불꽃이 튀어 폭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곡괭이로 금은방 부수고 절도

여수경찰, 2명 검거

여수경찰은 1일 농기구를 이용해 금은방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김모(23)씨 등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전날 새벽 3시25분께 여수시 학동 박모(69)씨의 금은방 유리창문을 농기구인 곡괭이를 이용해 부수고 들어가 목걸이와 반지 등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김씨 등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금은방을 고른 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시간은 불과 4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기아차 ‘쏘울’ 화재

차체 결함 여부 조사

수출 직전에 반송 처리된 기아자동차 ‘쏘울’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경찰과 회사 측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일 기아차 광주공장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 영암군 삼호면 대불부두 인근 국도에서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쏘울 차량 1대가 보닛 안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엔진 내부를 태우고 5분만에 진화됐다.

기아차는 화재 차량을 광주공장으로 옮겨 정확한 화재 원인과 차체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복권가게 털이범 차 색깔 때문에…

쌍나팔

○…복권가게 주인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몰래 가게에 들어가 복권과 현금을 훔친 50대가 범행에 이용한 자신의 승용차 색깔 때문에 덜미.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임모(53)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이모(50)씨의 복권가게에서 이씨가 택배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가게를 비운 틈을 타, 복권과 현금 등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5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임씨는 이씨의 가게에서 금품을 훔친 뒤 자신의 녹색 카렌스 차량을 타고 달아났는데, 광주지역 동일 차종 소유자 29명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에 덜미.

/김호기자 kimho@